

쇠고기 수입물량 확대와 육우산업

87년도 쇠고기 수입개방설에 긴장된 소사육 농민들이 약간의 개방은 전면 개방이라고 주장하며 과천, 여의도 또 각 지역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노력하는 집회를 과민반응이라고 주장하던 정부는 2년도 안돼 쇠고기 수입량이 8만톤으로 증가

1. 서 론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에 의해 피해를 입은 황량한 대지위에도 9월의 따사로운 햇살은 수마가 휩쓸기전과 마찬가지로 내려 쬐고 있지만 풍요롭게 영글어 가야할 오곡백과는 이미 진흙탕에 망신창이가 되고난 후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연의 혜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년전부터 비교우위론을 앞세운 미국인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합작으로 조상대대로 이 땅을 묵묵히 지켜온 선량한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서서히 잠식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중부지방을 강타한 수해와 한국농업 전체를 말살하려는 「우르파이 라운드」(이하 UR이라 함)를 비교해 보면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으리라 보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 수해와 농업

근래 보기도문 집중호우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저지대에 살고있는 사람들과 중부지방 일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고없이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하루밤사이 집과 애지중지 길러온 곡식과 가축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현대식 장비를 갖추고 시시각각으로 기상변화를 파악하여 일기예보를 하는 중앙기상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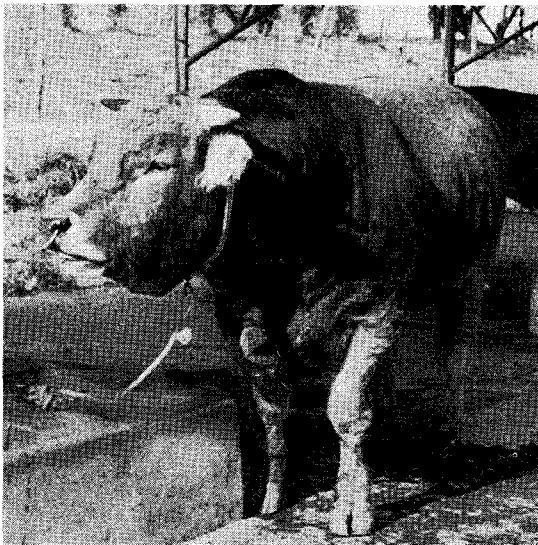
박충걸

울산 울주 육우회 회장

서 미리 감지를 해내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한강상류 곳곳에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목적 댐이 있었으나 이번 수해에 제몫을 다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댐의 수위를 위험수위 이상으로 높힘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침수되고 많은 농민들의 피땀어린 정성으로 영글어가던 곡식들이 낭패를 당하고만 현실을 보면 국민편익시설도 잘못 운용하면 오히려 해를 입힌다는 교훈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소 수위조절을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댐을 정부로 보고 댐의 조절능력을 능가하는 폭우를 UR이라고 비교한다면 폭우를 예상하고 수위를 낮추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조치가 아닐까요?

87년도 쇠고기수입 개방설에 긴장된 우리 축산인들은 조금의 개방은 전면 개방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천으로, 각지역 도청으로, 여의도로 달려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무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외국산 쇠고기는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었고 농민들의 우려를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변하던 정부는 2년도 채않된 시점에서 농민들의 걱정보다 엄청난 굴복의 결과를 우리앞에 던져놓고 뚜렷한 대안 하나없이 우왕좌왕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지난 선거때 농민의 아들임을 목청높여 외치며 농촌이 잘살아야 국가경제가 튼튼해 진다고하며 자기만이 농민을 위하는 유일한 사람인척하며 농민들의 표를 빼앗아간 정치인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란 말인가요?

우리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기위해 쪼들리는 주머니끈을 풀어 생존권수호의 대열에 동참했을때 찰거머리처럼 따라붙으며 갇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하던 행정당국자들도 분명 우리가 낸 세금으로 생존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신들의 방해로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한채 당하고만 있는 현실의 아픔을 어떻게 보상해 주어야 할것이며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요?

800만 농민중에서 선택받은 농민 5만의 농민후계자.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과연 자랑스런 농민후계자의 위치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비오는날 우여곡절끝에 성환의 진필구덩이로 내몰린 후계자와 가족들은 이나라 이정부가 선택하고 지원한 농민후계자가 아니고 그 누구였던가요.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농민후계자라는 자부심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까지 데리고 내고장 특산물을 정성스레 손질하여 전국에서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후계자들이 도시의 공터에서 요란스레 벌려놓고 모단체의 후원으로 성업중인 야시장 사람들보다 무엇이 얼마나 못났기에 특산품 판매는 커녕 진필구덩이로 내몰리는 수모를 당해야 하나요.

이래놓고도 「農者天下大本」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없이 얘기 할수있으며 선거때만 되면 철새처럼 날라와 농민의 아들을 외쳐댈 수 있을까요?

진정 농민의 아들이라면, 그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아버의 죽음앞에 뒷짐만지고 수수방관하는 후례자식이 되지않기위해 지금이라도 발 벗고나서 아버의 죽음을 강요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강한 아들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월은 흐르고 또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할 선거는 시시각각으로 닥아 오고 있습니다.

이땅의 고통받은 모든 농민들이여!

당신들은 지금 당신의 편에서서 당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신의있고 자랑스런 아들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우린 이제 아무도 우리의 주검앞에 애석해 할 사람없는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목눌림을 강요하는 세력들만 모여두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UR을 내세운 미국과 EC 제국 입니다.

UR은 권투경기가 아닙니다.

아니 잘못된 권투경기 입니다.

국민학생과 대학생이 맞붙는 그런 경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는 요행수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과는 불을보듯 뻔한데도 그냥지는 것이아니라 사활이 달린 경기인데도 현정부는 요행수에 의존한채 관전만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관중(농민)들은 경기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머물곳이 어디입니까? 도시의 빈민촌이요, 노점상이요, 막노동판입니다.

도시의 고통받은 서민대중들은 농촌의 고통

을 막연히 해결할 길이라도 있을까해서 고향을 등진 바로 우리의 이웃이였고 우리의 부모 형제였던 그들입니다. 그렇기에 UR은 이번에 중부지방의 농촌이나 도시에 끌고루 쏟아부은 수해와 똑같은 것입니다.

3. UR과 육우산업

“미국의 쌀과 쇠고기가 한국의 농촌을 초토화하고 미국의 은행과 증권회사가 한국의 금융시장을 말아먹고 미국의 주유소와 백화점이 한국의 유통질서를 뒤흔들고 미국의 학원과 영화관이 한국의 교육을 마비시키고……”

최근 어느 월간지를 인용한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통체로 말아 먹으려는 괴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괴물을 원격조정하고 있는자가 누구인지 똑바로 인식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UR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여덟번째 다국간 무역협상이며 그 협상목표는 세계무역의 완전 자유화와 각국의 국내정책에 대한 가트(GATT)의 규제에 두고 있으며, 가트는 2차 대전후 미국의 주도 아래 제국주의 국가간의 세계시장 분할, 지배를 전쟁에 의하지 않고 협상 조정에 따름으로서 신식민지 지배구조를 유지 강화하여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하기위해 만들어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위한 국제조약이자 국제 교섭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UR은 작금에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며 GATT정신에 의해 이미 1986년 9월에 작성된 조약이며 87년 이후 줄기차게 가해오던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은 바로 UR협상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것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내 축산업종중 가장 취



약한 생산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의 육우산업은 넘실대며 굽이쳐 밀려오는 홍수에 외로이 버티고 있는 강변의 갯버들 가지와 다를게 무엇이겠습니까.

원초적으로 이런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데 원가절감이니 품질경쟁이니 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굽히지 않고 정부의 확고부동한 대안없이 스스로 자생능력을 키우려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냐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설부른 판단이라고 타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을내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몸부림치는 선량한 농민들을 마치 적이나 되는것처럼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무참히 짓밟는 행위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며 받아들여야 하나요.

인간은 분명 사고력을 가진 동물이며 자기 판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상급자의 진격명령에 아무런 주

저없이 무자비하게 짓밟는 현실사회는 분명 잘못 굴러가고 있는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적도 아니요 모든 국민들의 이익에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이기주의자들도 아닙니다.

전술한바와 마찬가지로 UR은 축산분야만 개방하라는것이 분명 아니며, 한국경제 전체를 개방하라는 것입니다.

어느것이 국익에 상응하는 길이고 어느것이 국익에 상반되는 것인지 이제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됩니다.

끝까지 꿈을 깨지못하고 자의든 타의든간에 경제침략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면 우리농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은 자기주장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채 경제권을 고스란히 강대국에 내어 주어야 할것이며, 멀지 않은 장래에 식량위기는 필연적으로 닥쳐올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이 말살되고 나면 농업에 종사

하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하게 될 것이고 농업을 상대로 공산품을 생산하던 모든 업체들이 문을 닫으므로해서 일어나는 대량의 실직사태는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촌경제는 국가경제의 뿌리입니다.

또한 농촌은 온국민의 고향이요, 국민모두가 지켜야 할 자연, 바로 그것입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진 생물이며,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절대절명의 식량공급권을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는 이리같은 미국에게 고스란히 내어주고 온국민 모두를 고려장 시킬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농업의 포기는 곧 우리 모두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으며, 어떠한 희생과 고통을 치르더라도 농업의 수호는 국가수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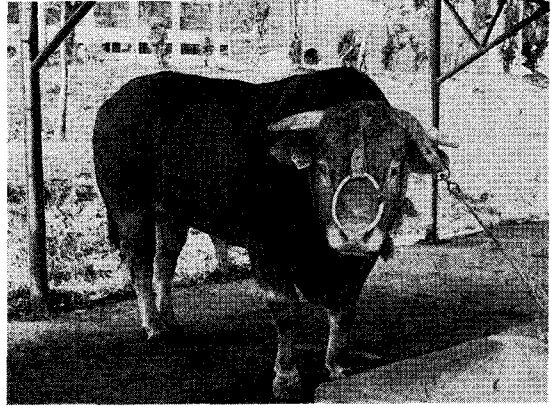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불매 농업을 경시한 부족들은 멸망했습니다.

용감무상하고 건강한 바이킹족들은 농업을 경시하고 약탈만으로 호화찬란한 생활을 했지만 결국 타의에 의해 몰락하고만 사실은 바로 역사의 좋은 교훈이 될것입니다.

4. 결 론

세계의 역사는 제쳐두고 한반도 5천년 역사를 되돌아 보더라도 수많은 정치가 이루어졌지만 백성들을 바로보고 백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헤아려 수용한 정권은 흥했으며, 백성의 소리에 귀기울이지않고 독주한 정권은 타의에 의해 쓰러졌으며, 영원한 역사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아무리 강변해도 거스를 수 없는 냉엄한 것입니다.



현정부는 작금의 모든 사태들을 냉철히 판단하여 농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오히려 장려하고 농민에게 집중된 방어력을 UR쪽으로 돌려서 전체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수마가 활취고간 농경지와 가옥은 많은 자금과 노력으로 단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보다 몇백배 몇천배의 위력으로 한반도에 닥아오는 UR에 의한 피해는 많은 자금과 장기간에 걸친 노력에도 복구되기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농업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민은 모든 중지를 모아서 반목과 불신을 버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UR의 재난을 막아내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자자손손 풍요를 누리도록 합시다.